철학 치료의 가능성

상걸

(중국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나는 학자들이 늘 사용하는 논증적 방법이 아닌 서술적인 방식으로 철학 치료의 가능성——철학 치료에 대해 얘기하고저 한다. 여기서 거론하게 되는 것은 "나"자신의 영혼이다. 누구나 다 자신을 "나"라고 부르기때문에 나는 다종다양하고 모순적이며 언행불일치적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진실한 체험이 바로 나의 판단력이란 것이다. 내가 자신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에 판단자이자 또한 당사자임에 틀림없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파스칼이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늘 외롭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즐겨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있을때 외로움이나 지루함을 느끼지 못한다."

사람마다 각자 천성이 다르기때문에 즐기는 방식도 수없이 많다. 나는 정신적이거나 형이상적인 쾌락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써낸다. 놀랍게도 글 쓰는 일은 더 이상 나를 외롭게 하지 않았으며 아주 효과적인 심리치료법이었다.

니체는 당연히 프로이트보다 고명하다. 프로이트의 유일한 목적은 환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나아가서 우울증을 없애는 것이지만 니체는 우울증이란 외로움과 마찬가지로 아예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 프로이트 자신도 우울하다. 니체

가 생각해낸 방법이란 치료할 필요 없이 나쁜 일을 엉망이 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두고 도대체 어느 정도로 악화될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사고는 두가지로 나뉠수 있다. 세속적이거나 표상적인 세계에서 사고는 어떤 계산이나 책략을 가리키는데 이런 사고는 실제적 효응을 통해 성공여부를 가늠할수 있다.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고만이 철학가의 일이고 철학치료의 대상이며신비로운 실재계에서 속한다.

철학 치료사와 심리의사의 다른 점은 바로 실재계에 대한 태도다. 사실상 심리의사는 현상계에만 머물러있지 실재계와는 접촉이 없다. 왜냐 하면 깊은 원초적 심리요인(무의식, 예를 들면 생리학적 의미에서 말하는 꿈)과 부딪히고 우울함이 마음을 억누를때 심리의사가 하는 치료는 원인을 찾아내고 증세에 맞게 약을 쓰면 호전되거나 완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주 사용되는 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심리상담인데 마음속의 비밀이나 프라이버시를 토로하면서 점차 긴장을 풀고 심리의사의 심리적 지도와 약물치료를 통해 완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학치료사는 이러한 "치료"자체가 불가능하며 그냥 스스로를 속이는 일일뿐 문제의 궁극적 해결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것을 두려워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이나 공포는 치료할 수도 없거니와 치료할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면 인간의 행복도 따라서 사라기 때문이다. 죽음이 일종의 행복(사람들이 말기암환자가 세상을 떠나는것을 해탈이라고 생각하는것 처럼)이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자체에 후련(각종 익스트림이나 사람들이 심지어 공포장면을 보기 좋아하는것을 생각해보라)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었다는 뜻이며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웃음으로 맞이하는 태도를 말한다.

에피쿠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죽음이란 없고 죽음이 존재하면 나는 없어지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 에피쿠로스의 이 한마디 말은 철학치료의 전형적인 예로서 기독교목사의 임종기도와 다르며 중국 전통문화 속의 점쟁이나 풍수쟁이와도 다르다.

철학치료사와 목사의 다른 점은 바로 우리는 이미 목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고 있고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 계속 반복하면 영혼이 신선함을 잃게 되면서 기도의 위령작용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늘 인간의 영혼에 변화무쌍한 자극을 주는 것이 바로 철학치료의 매력이다.

철학치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는것이 아니라 단지 영혼이 어떤 문제를 즐기기를 바랄뿐이고 종래로 그 무언가를 진지하게 표현한적은(일반인에게는 다 쓸모없는 말들이기때문이다) 없지만 유창하고 감칠맛있게 말을 쏟아낸다.

철학치료는 당신과 함께 사고를 한다. 이러한 사고는 철학강의와 달리 나와 당신사이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무의식적인 사고는 사고 그 자체, 원초적인 사고를 가리킨다. 바꾸어 말하자면 철학치료는 목사의 기도에 비해서 더욱 깊이있고 재미있다. 취미나 마음속의 쾌락은 철학이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하나의 연구방향일수도 있다. 철학치료사는 점쟁이나 풍수쟁이처럼 복잡하지 않다. 철학치료는 종래로 운명을 예측하지 않으며 우아한 거주환경과 풍요로운 정신세계는 필연적 인과관계가 없다.

"철학치료"의 상황은 늘 존재하는데 아우구스카누스와 장 자크 쿠소의 작품——서로 다른 시대에서 만들어진 두 <참회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참회"란 원래 영혼을 언급할때 사용되는 종교술어였다. 하지만 교회교리의 틀에서 벗어나 살아 숨쉬는 영혼에 대해 가혹한 사고를 하게 되면 종교에서 말하는 "개종"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두 <참회록>속에 나오는 "참회"란 위에서 말한 목사의 기도와는 달리 철학적 성격을 띤 사고로서 자아철학치료작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치료는 필을 들고 글을 쓰는 순간에 시작되어 창작이 완성되면 끝난다. 장 자크 쿠소가 끝내 후련해진 것은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속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진솔하고 상세하게 고백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장 자크 쿠소의 작품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바로 그가 논리적인 사고가 아닌 마음으로 도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다. 비록 누구에게나 다 이러한 유일무일성이 있다고 말할수 있지만 개개인의 천성이 다르기때문에 정신적 측면에서 보이는 차이점은 아주 크다. 마음은 독특하지만 말로 표현하면 그 언어적 특징은 언제나 "평범"해지기 때문에 자연히 속에 없는 말을 피할수 없게 된다. 허나 이는 고의적인 거짓말과 상관이 없다. 장 자크 쿠소는 민감한 직감으로 거의 모든 이성적인 도리를 동찰한다. 그의 작품에서 보여준 것은 바로 그의 천성이다. 일부러 독자들의 호감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기묘하게도 그가 자신의 천성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인류의 어떠한 보편적인 천성을 제시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이 원래 지니고 있었지만 느끼지 못했던 것이기에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

지금까지 철학가들은 줄곧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들은 자신이 항상 현상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주의시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관심을 가진 본질이란 사실 기존의 표상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물자체가 아니다. 이 물자체는 욕망적인 세계, 본능적인 세계에 속한다. 프로이트의 말을 빌자면 무의식적인 세계다. 프로이트가 무의식(무의식이란 바로 인간의 물자체다)을 철학적 개념으로 진화시켰을때 그는 심리의사일뿐만 아니라 철학치료사이기도 하다.

"프로이트는 옳았다. 머리속에 복잡하게 얽힌 정신적 에너지의 저장소가 있는게 틀림없고 의식적 인식밖에서 항상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이성이 환원되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이 "복잡한 정신적 에너지의 저장실"에는 희미하고 불확실한 정신적 요인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있는데 결국 그중 어느 하나가 자율적(즉 판단)으로 등장하게 될지는 영원히 풀수 없는 수수께끼다. 이는 또 철학가의 실제 사고과정, 과학가의 실재 발명창조과정, 작가의 실재 창작과정, 심지어 연설가의 강연과정과 일치하거나 비슷하다. 즉 즉흥적이고 불확실한 미래가 통합되고 모든 시간적 요소들이 한데 집중되어 있는 현재는 아주 묵직하고 복잡하기 그지없다.

인간의 진실은 자신이 아닌 곳에 있다. 이 말은 인간의 진리가 인간

에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사람들은 이미 많이 토론해왔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 인간의 진실은 여전히 언급되지 않은 x에 있다는 뜻이다. x는 또 정신이 항상 교차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치상태, 일종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 예를 들자면 사랑이나 그리움이다. 세속적인 관념에서 볼때 중요한 것은 사랑이나 그리움의 대상인데 만약 상대방이 있으면 사랑이나 그리움은 끝난다. 이러한 관점은 정신병이나 낭만주의 혹은 낭만적인 요소의 발원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리 신중하지 못하며 사실상 감정 자체의 열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밖으로가 아닌 안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 자크 쿠소는 워렌부인이 없을때만이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느끼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소원해지거나 혹은 멀어지게 된다는 뜻이고 장 자크 쿠소가 다른 사람뒤에 숨어서 글을 쓸때만이 진정한 장 자크 쿠소가 되는 것과 같다.

철학치료는 자유로운 상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유로운 상상은 임의적인 환상을 불러올수 있다. 이것이 철학치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왜 심리의사에 의한 치료일뿐만 아니라 철학치료이기도 하다는 것일까? 그것은 자유로운 상상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어떠한 초조함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도록 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것이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꿰뚫어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력을 전이시킨 것과 비슷하며 마치 마음속 어두운 곳에서 자발적으로 밝은 빛을 내는 것과 방불하다. 이는 완전히 형이상적인 상황으로서 철학치료지 심리치료가 아니다..

철학치료중의 "치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끝까지 사고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절망한다는 것은 곧 희망이 없다는 뜻이다. 절망은 형이상적인 문제로서 심리의사가 치료할수 없으며 철학치료만이 효과가 있다. 이때 니체의 격어체가 마치 밤하늘을 스쳐지나가는 번개와도 같은 것처럼 철학적 언어들이 힘찬 말들을 만들어낸다. <희망은 가장 큰 재난이고 진리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하나의 착오이다. 진리의 적은 거짓말이 아닌 강한 믿음이고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두번 다시 죽음을 겪지 않는 것이다.> <용기를 내서 어둠을 체험하는 감정에 자랑을 느낀다.> 니체의

매 한마디에서 천백마디가 탄생할수 있다.

철학치료 자체는 불합리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위령을 해야 하는데 치료자체가 또 일종의 꿈이나 정신적 병이듯이 부딪힌 문제에 답이 있을리가 없다. 예를 들면 절망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여기서 "해결방안"과 "답안"을 구별할줄 알아야 하는데 전자는 실험 혹은 시행착오이지만 후자는 항상 "정확함"의 동의어다. 답도 없는 상황에서 정신세계는 무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나오면 안된다. 왜냐 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무의미한 정신상태가 진지한지 어리석은지를 판단할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모순적이다. 정상적인 정신상태는 늘 어리석고 기만적이지만 진지한 정신상태는 잔혹하거나 심지어는 병태적이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나쁜 일을 끝까지 사고하거나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는 것을 싫어한다. 니체가 바로 불편함을 끝까지 참을수 있는 그 사람인 것이다. 일반인은 그 불편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깨버릴려고 한다. 점잖고 예의발라서 야만적인 불편함을 마주하지 못하는 것이다.

철학치료는 환각을 복원시켜준다. 미셸 푸코는 마약을 복용하지 않고 과연 마약의 힘을 얻을수 있는지 조롱한 적이 있다. 철학치료가 마약은 아니지만 정신적 쾌락의 일종인 환각이 일으킬수 있는 위령작용은 이미 보편적으로 인정되었다. 언어로 표현하자면 환각이란 바로 거기에 있는 무언가를 무언가로 생각하지 않고 임의의 다른것이라고 여기는것이다. "여긴다"는 것은 문학예술 범주에 속하는 감정전환, 은유, 깨우기 등등과 같다. 예를 들면 니체가 환각속에서 자신의 편두통을 신작탄생 전의 분만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환각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동물, 식물과는 구별되는 원초적인 능력이다. 정신적 독창성중에서도 폭력적인 환각은 발견과 발명의 정신적 동력으로서 인류문명의 모든 영역에 관여되어있다. 미쳐버린 지혜는 사람을 열광하게 하며 진지함과 관심이 하나로 어우러진다. 권위와 관습적인 관점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이것이 바로 데카르트, 장 자크 쿠소, 니체, 그리고 모든 창의적 정신을 가진 철학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관습이 인정하는 무언가를 참신한 무언가

로 간주할때 그들의 관점이 정확하다기보다는 정신적 생활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했다고 볼수 있다. 다른것 뒤에는 또 다른것이 있기때문에 그 새로운 가능성은 끝이 없다.

철학치료에는 사물을 새롭게 명명하는 것(복원)이 포함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명명능력은 철학가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다.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새롭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마음수술을 하는것"과 같이 사람을 생기발랄하게 만든다. 왜냐 하면 언어가 어떠한 국한성이 있든지간에 궁극적으로 인류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정신에 있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세계이다. 정신의 복잡함과 미묘함은 결국 언어를 통해서만이 유창하고 완벽하며 정확해질수 있다. 정확하지 않는 불확실성은 아무 것도 아니다. 한 사람이 자신에게 사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로 사상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명명능력은 "마음수술을 할"(정신분석-철학분석)때 쓰는 메스와 같다.

철학치료는 "정신분열"을 복원시켜준다. 당연히 병태 생리학적 의미에서 말하는 정신분열환자가 아니라 사람의 잠재의식속에는 서로 충돌되는 정신적 경향이 있다는 뜻인데 이런 경향들은 옳고 그름의 관계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것이 아니라 자각하지 못하는 것뿐이고 왕왕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을 비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흥분하게 만들며 매 사람마다 하나의 수수께끼이므로 자주 보다보면 신기한 일도 아니다.

철학치료는 관습적인 생각과 권위에 도전장을 내민다. 그리고 칸트의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식 철학혁명"처럼 의식의 활동성이 주동성으로 표현되는것을 인정한다. 애석하게도 칸트는 이러한 주동성의 비개념적 세부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200년전에 먼저 태어난 미셸 드 몽테뉴는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의 화제에 접근했다. "나의 사상이 하는 일없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쉬는 것이 그것에 대한 제일 큰 보호같았지만 사실은 내 생각과 빗나갔

다. 내 머리속은 고삐가 풀린 들마처럼 하루종일 생각을 굴리고 있었는데 한가지 일을 생각할 때보다 백배는 더 바빴다. 머리속의 환각은 무성하게 쌓이고 쌓여 질서가 없었다. 이런 어리석고 이상한 행위를 수시로 관찰하기 위해 나는 하나하나 필기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를 바랐다. "

미셸 드 몽테뉴는 자신이 무의식중에 생각한 진실한 상황과 환각속의 일들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것은 부끄러워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왜서인가? 그가 "어리석고 이상"한 생각들을 써낸 것은 무례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참지 못하고 기록을 하는 것일가? 지루해서가 아니라 후련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말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못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하면 무조건 공감(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공감을 말로 인정못할때도 있다)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후련함"이 독자들을 깨운 것이다.

철학치료에는 심리암시도 포함되어있다. 심리활동은 감각기관이 포착한 기억에 참여했다. 심리암시의 암굴속에는 칸트식의 주동성도 있다. 버클리가 주장하는 "존재 자체가 감지되는"것이란 주동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만이 칸트에게 인정된다. 즉 "보기만 했다"라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을 감지하는것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현재의 기억과 과거의 경험, 상상속에서 일어날것 같은 예감, 기존의 지식들, 유전적으로 전달받은 정신적 습관, 자신의 정신적 특징 등들이 무의식적으로 한데 섞여서 새로운 정신적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감각기관에서 오는 모든 반응들이 신경조직에 의해 새롭게 변신하였다.

심리-신경조직은 개념을 소유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타고 났을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리적 조직이기도 하다. 생리적이란 정신적이기도 하고 정신적이란 생리적이기도 하며 이들은 공동으로 인간의 모든 본능을 구성한다. 무의식적 본능, 성적 본능, 자유의지적 본능, 이성적 본능 등등——이러한 본능들사이는 어떠한 때에는 잠시적으

로 서로 독립적이어서 협력의 문을 닫아버리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또 서로 협력하기도 하는데 이 두가지 경우가 언제 다가오고 발생할지는 알수 없는 일이다.

효과적으로는 나(동일인물)의 정신에 "분열" 경향이 나타나면 마치 서로 다른 "자신"이 존재하는것처럼 나답지 않게 나쁜 일과 좋을 일들을 할수 있는데 이는 지혜로우면서 어리석기도 하다. 마치 장 자크 쿠소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진솔하기도 하지만 모두 진실한 장 자크 쿠소인 것과 같다. 그는 진솔하게 거짓말을 한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경우든 진솔함과 거짓말을 혼동하면 안된다고 반박한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각과 환경에서 이 일을 말하고 있고 나는 일이 발생하기전의 시초에 돌아가 있기때문에 모든 것이 뒤섞여있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성이 환원되었을 때라고 말할수 밖에 없다.

나의 마지막 결론은 철학치료란 우선 자신이 느낀 것에 대한 충실한 기록이어야 한다. 장 자크 쿠소가 마음속깊이 숨겨둔 비밀을 남김없이 글로 써내어 독자들과 공유하는 것처럼말이다.